

최근 병역비리가 다시 화재로 떠오르며 뉴스와 각종 신문의 일면을 차지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란 법률에 의해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즉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 작전에 협력 할 의무, 군(軍)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등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방의 의무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로 이는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방위해야 할 의무이며, 법률에 따라 병역에 종사할 법적인 책임이다.

가수 ○○의 병역비리 사건이후 잠잠해졌던 병역비리가 이제는 한층 더 교묘한 수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환자 바꿔치기, 신체 훼손, 국적포기, 우회적 입영연기 등.

날로 교묘하게 진화해 다시금 이슈화 되고 있는 지금, 인터넷만 조금할 줄 안다면 검색창에서 병역기피를 원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그 예로 “이미 현역은 끝났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국적포기 이해합니다.” “저라면 차라리 군대 갔다오는 시간에 자기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자신의 청춘 2년을 군에서 허비하기 싫다.” 등.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서의 시간을 무의미



불자 세상보기

김정연
동국대 학군단장 · 육군 대령

병역기피, 비겁한 선택의 말로

하다 생각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려는 현상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소다.

중동전쟁 당시 미국의 한 하숙집에 이스라엘 유학생과 이집트 유학생이 하숙하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나자 같은 날 두 학생이 모두 없어졌다. 알고 보니 이스라엘 청년은 조국에 가서 전쟁에 가담했지만, 이집트 학생은 징집될까 봐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갔다. 결국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전쟁은 불과 1주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당시 이스라엘 국민은 300만, 이집트는 1억이 넘는 대국이였다. 이스라엘은 300만이 한마음으로 단합했지만 이집트등 아랍권은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지리멸렬한 상태였다.

이렇듯 이스라엘 국민의 하나로 단합된 힘 앞에서 이집트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사막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늪지대와 모래땅을 적서 비옥한 옥토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강한 훈련과 병력의 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에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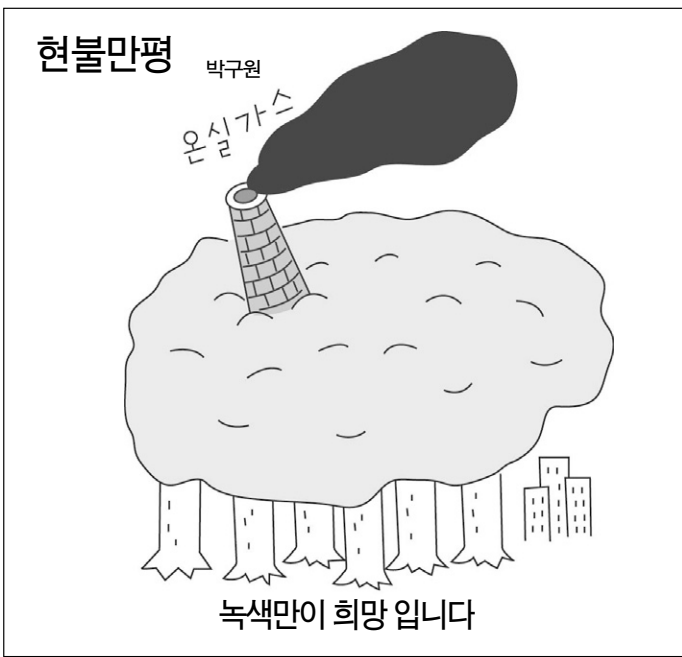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투철한 안보의식이 강한 국가를 만든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강한 국가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자유민주국가의 한 성원으로서는 군복무는 누구나 수행해야 할 의무이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한 국민만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명예로운 특권이다. 군에 가고 싶다고 누구나 군복무를 할 수는 없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택받은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임무완수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법규를 잘 지키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맡은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인 북한과의 휴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위의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의 안보를 수시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제2의 임진왜란과 을사조약과 같은 역사적 오점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www.hyunbul.com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6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9월의 테마·독서

전공서적을 독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실제 나의 독서량은 그리 많지 않다. 책을 잘 읽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 또한 일에 쫓겨 책을 읽는 여유로움은 사치에 가깝다. 최근 몇 년간 내가 읽은 책은 딱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그 전부터 좋아하던 작가의 신작이고 다른 하나는 저자에게 직접 법보시의 형태로 받은 책이다. 읽는 책의 대상이 협소하다보니 책 읽기의 기회는 그리 자주 생기지 않는다. 그래도 과거에는 책을 꽤나 좋아해 많이 읽었다. 특히 군에서 소대장 하던 시절인 2001~2003년 까지는 1년이면 50여 권의 책을 읽었다. 군 생활 하면서 유일하게 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토요일이면 일간지에 끼어 있는 책에 관한 섹션 뿐이었다. 매주 일요일 오후가 되면 부대가 있던 강원도 화천읍 내 서점에 들러 신문에서 보았던 책들을 사서 읽는 것이 그때의 유일한 낙이었다. 마음에 든다 싶으면 체크해둬다가 구매 읽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

바쁜 생활 속의 작은 즐거움, 책 읽기

레 좋아하는 장르·작가가 생기게 됐다. 지금도 그때 좋아하던 작가의 신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사서 읽는다. 몇 일전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1Q84>가 5년 만에 출간됐다는 소식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책을 읽고 있다.

하지만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은 짧으면 수개월, 길면 몇 년 만에 나오기도 하니 책 읽기의 기회는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법보시 받은 책, 처음에는 책을 받아도 잘 읽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책의 수량이 꽤 됐다. 하나씩 읽다가 보니 이제는 또 누군가 책을 쓰지 않을까 기다릴 정도다. 지인이 직접 쓴 책을 받아 읽으면 다른 책을 읽는 것보다 몇 급절 줄겠다. 내가 평소에도 알고, 또 대화를 나누던 분들의 책이어서 그런지 읽다가 보면 행간에서 그 분들과의 대화가 곧잘 떠오르게 되고, 또 그렇게 나뉘던 대화들이 글에 녹아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빙긋이 웃게 되거나 아니면 글이 전해주는 것 이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워낙대 이태승 선생님의 <인도철학산책>이나 동국대 김호성 선생님의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하다>와 같은 책은 자주 만난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의 책이어서 그런지 읽는 내내 즐거웠다. 보조사상연구원과 인도철학회 등 여러 학회의 간사 소임을 맡아 일하다보니 학술대회 자료집 편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록된 논문들을 거의 대부분 읽게 된다. 그렇게 읽은 논문은 학술대회 자리에 가면 저자들이 직접 설명해주기 때문에 이해하기 한층 수월할 뿐 아니라 재미가 생겼다. 그런 경험으로 한 가지 제안 한다면, 자신이 아는 사람의 글을 읽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상관없다. 유명한 정치가나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학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분들의 육성을 들여보고 또 그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단순히 문자로만 접하는 책 읽기보다는 훨씬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쁜 와중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작은 즐거움에 아마도 더욱 소중하지 않을까 싶다.



안필섭
동국대 강사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률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천년초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입니다.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명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기 또는 명망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